

국민의당 전당대회 ‘흥행 기대감’

모바일 투표 20% 임박...올 1월 전대보다 열기 고조

“지지당원 결집 나에게 유리” 安·鄭·千·李 자신만만

국민의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 온라인투표 이틀째인 23일 투표율이 20%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틀간의 온라인투표와 곧 치러질 ARS투표까지 합하면 최종 투표율이 30%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1월 치러진 전당대회 투표율이 19%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흥행 대박' 조짐이어서 국민의당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시작된 온라인투표의 투표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6.6%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당원 24만1287명 가운데 3만726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1월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이 19% 수준에 그

쳤던 것과 비교하면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원들이 이처럼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선장격인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다, 예상을 깨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구도가 요동을 쳤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는 25~26일에는 ARS 투표가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높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

번 전대의 최종 투표율이 최대 30%까지는 올 것으로 기대하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대표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당원들이 참여한 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조직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반면 이언주·정동영·천정배 후보(기호순)측은 “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리 측 지지 당원들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투표를 독려했다.

천 후보 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은 것은 호남지역, 특히 광주·전남지역 당원들이 투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당원수가 타지역을 압도하는 만큼 천정배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후보 측 역시 “전대 출마 이유와 향후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정동영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저희는 친 안, 반 안, 호남, 비호남에 구애받지 않은 캠프로 투표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대 후 당 분열을 걱정하는 당원들께서 투표에 적극 나선 것이라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25~26일 진행되는 ARS 투표가 남은 만큼 현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우월리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당원 투표에서 최종 투표율 30%를 기대할 정도로 흥행에는 성공할 조짐이다. 이는 전례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정도의 굉장히 높은 관심으로, 당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동영·천정배 “호남 대변인은 나”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지지호소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기호 순) 후보가 온라인투표 이틀째를 맞은 23일 광주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타이어 때 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금호타이어 회생을 담은 과제로 정해 지역 의견을 100%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당 대표 선출을 통해 우리 당이 특정인을 위한 사당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인식을 바꾸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심의 신뢰 얻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개혁 요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은 국민이 외면하고 호남의 민심이 더욱 빠르게 식어버릴 것이다”며 “민주주의의 뿌리와 호남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자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주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면서 “안 후보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이번엔 백의종군하고 재충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엄중한 가르침을 달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안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만약 당 대표에 당선된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몇 개월 뒤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이 안 후보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힘을 소진해야 하느냐”면서 “당 대표의 제가 말고 안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당을 살리는 튼튼한 두 날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내홍 봉합

당 혁신·공천 분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설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23일 극적으로 봉합됐다.

당 혁신 작업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별도로 분리해 다루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사실상 추미애 대표가 뒤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 체질 개선, 인프라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과 시행체계를 준비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정발위 설치 방침을 밝힌 이후 당내에선 친문(친문재인)이 다수 포진한 시도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추 대표가 정발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틀을 손질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은 정발위에서 공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대파와, 지방선거 공천 틀을 점검해야 한다는 추 대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발위에서 지방선거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질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언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당당하게 살겠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與 “억울한 옥살이” vs 野 “사법부 독립 침해”

한명숙 전 총리 출소 반응

여야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였다’는 평가와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맞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재판, 수

감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치보복이었다.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야 한다”며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들을 깨고 관성을 타파하는

모습이 앞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에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광장적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추미애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협치’ 강조한 30년지기

우원식·김동철 나란히 원내대표 100일

우 “민생·개혁 최우선”·김 “다당제 정착”

23일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회 운영 전략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개혁기관 개혁에 최우선을 두겠다.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운영위·정보위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비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30년 국회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우선 경각에 달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민생 우선의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공영방송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국회 운영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집권여당 리더십의 출발이자

책임정치의 기본”이라며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운영위와 정보위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조정하고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다당제의 제도화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속담을 인용, “지금 국민의당이 매우 어렵지만 이달 말 구성되는 새 지도부와 함께 역경을 딛고 당당히 다시 일어나는 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적대적 양당체제에 익숙한 우리 정치권의 관행과 문화 속에서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묵묵히 개척해 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협치를 선도하는 중도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한국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자평했다. /김형호기자 khh@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 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티미널빌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정 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일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인근 126평 매매가 5억2천
-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인근 46.2평 매매가 3억
- ▶장성군 원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재대지인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토지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공장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소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